**이름** : 김완수

**수업** :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작품명** : 벌레벌레

**작품설명** :

이 세상엔 곤충이 정말 많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85% 이상이 곤충이래요.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럼 다시, 곤충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숲과 들은 물론이고 남극, 심지어 용암지대에서도 곤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징그럽죠?

그리고 그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과 번식을 도전과제로 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더 멋지고 우월한 짝을 만나기 위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만 해요. 노련하게, 또는 얍삽하게 수많은 천적들로 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갖춰야합니다. 무리를 만들어 절대다수로 위험을 극복하거나, 다른 생물들과 공생관계를 맺어 서로 도움을 주거나, 또 다른 벌레에 기생하며 살기도 하는 것 처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도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 우리들만의 방식을 찾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걸요!

한 번, 곤충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건 어떨까요? 벌레와 사람을 비교해보며 새롭게 얻은 느낌과 자극들이 우리들의 사람 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벌레벌레’가 도와줄게요!

‘벌레벌레’는 곤충과 인간을 다루는 컨텐츠 연재물입니다.

의인화 된 곤충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살이를 주제로 하는 만화를 연재하며, 관련된 곤충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또, 다뤄진 곤충에 대한 작가의 엉뚱하고 다양한 생각과 시도들도 같이 연재합니다.